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가전명가’ 위상 되찾을 야심작

⑪ 대우일렉 ‘드럼 업’ 세탁기

광주공장 올해 45만대 목표
생산량 80% 미주·유럽 수출
내년 초 본사 광주로 이전

20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 공장내 세탁기 생산 라인.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0일 오전 찾은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의 세탁기 생산라인은 뜨거웠다. 공장 가득한 직원들은 활기가 넘쳤고, 108m 컨베이어벨트는 21초 만에 세탁기를 1대씩 뽑아냈다. 에어컨이 내뿜는 찬바람속에서도 전신인 대우전자 시절 쌓은 ‘가전 명가’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직원들의 열기가 공장 안에 가득했다. 대우전자가 무너진 이후 10년이 넘게 제 자리 걸음인 급여에 워크아웃과 구조조정을 계속해온 기업이라는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남산단 내 대우일렉 광주 공장은 ‘가전명가 재건’의 사령부다. 그 중심에는 1천300여명 직원들이 자존심을 걸고 만들고 있는 클라쎄 드럼세탁기 ‘드럼-업(Drum-Up)’시리즈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드럼업 시리즈는 올해 ‘드럼업 Ⅱ’까지 이어지면서 90년대 돌풍을 일으킨 ‘공기방울 세탁기’ 신화를 재현하고 있다. 도어를 11㎝ 올리고 드럼이 기울어지도록 설계해 주부들이 서 있는 자세에서도 손쉽게 도어를 여닫게 한 명품이다. 드럼업 세탁기는 출시 이후 10%에 불과하던 대우 세탁기 국내시장 점유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매출 신장률도 450%에 달했다.

광주공장도 덩달아 활기를 찾았다. 2007년 26만대이던 세탁기 생산량은 지난해 35만대로 급증했다. 올해는 45만대까지 늘려 잡았다. 이 가운데 ‘드럼업’ 물량만 30%에 이른다.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80%가 미주·유럽으로 수출된다. 최근에는 미국 GE사가 광주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연간 10만대 구매를 타진했다. 세계적 가전기업인 보쉬와 월풀과도 계약을 체결,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류석주 생산그룹장은 “90년대 가전제품 대리점 사장들이 공기방울 세탁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공장 앞에 줄을 섰다”며 “드럼업 세탁기를 출시하자마자 소비자들의 구매문의가 빗발쳐 10년을 넘긴 구조조정을 끝낼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드럼업’시리즈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끄는 비결은 기능성 디자인에 있다.

경쟁사들이 아름다움을 위한 디자인 경쟁에 나설 때 세탁물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여야 하는 주부들의 불편함 해소와 사용 편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효한 것.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고, 운동화 세탁도 할 수 있는데다(국내최초), 자동세제 투입 기능(세계 최초)까지 빨래에 시달리는 주부들에게는 혁명에 가까운 서비스를 선사했다. 손으로 빨아야 했던 스타킹과 속옷까지 세탁하도록 한 세심한 배려도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대우일렉은 내년 2월 워크아웃 졸업 이전까지 광주로 본사를 이전한다. 새롭게 ‘광주시대’를 여는 대우일렉이 또 어떤 제품으로 지구촌 소비자를 파고들지 기대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형 슈퍼 골목상권 진출 제동

중기청, 인천서 홈플러스 개점 일시정지 권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확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20일 처음으로 SSM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일시정지 권고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가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중기청은 이날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최근 사업조정을 신청한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연수구 옥련동)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중기청 관계자는 “옥련점이 개점하면 인근 20여개 중소 슈퍼마켓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조합 측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옥련점은 SSM 등 유통업 관련 첫 번째 조정 신청 사례다. 일시정지 권고는 중기청이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는 사전 조치로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일 때 이뤄진다.

중기청은 인천슈퍼조합과 삼성테스코로부터 자료를 받아 심의한 후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자율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기청의 이번 결정으로 SSM 출점이 예정된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광주 기업형 슈퍼 입점 제한 해야”

진선기 시의원 대책 촉구

진선기 광주시의원은 20일 “기업형 슈퍼(SSM)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는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지역에는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점 18개와 SSM 5개가 이미 들어와 있고 연내 3~4개가 추가 입점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SSM 주변 소매업체들은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WTO 규정을 핑계로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SSM 입점 제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처럼 1천㎡(약 300평)이하 규모 SSM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어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기업형 슈퍼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광주전자 “2013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감축”

삼성전자가 2013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또 녹색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장 구축에 2013년까지 5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광주전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 대기업들의 녹색경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일 이윤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사옥에서 녹색경영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녹색경영 비전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까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년 대비 매출 원단위 기준으로 50% 감축한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그룹 전자부문에서 전체적인 로드 맵이 제시된 만큼 향후 계열사별로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